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토*

장 수 지[†]

경성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정체감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부부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확률표집에 의해 추출된 35~65세의 일본인 기혼남녀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매개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EPAQ(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로 측정된 긍정적 남성성(PM), 긍정적 여성성(PF), 부정적 남성성(NM), 부정적 여성성(NF)의 4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높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은 부부관계 적응을 높이는 유효한 요인이었다. (2) PF는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부부관계 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PF가 부부관계 적응을 위한 중요한 속성임이 제시되었다. (3) PM 역시 두 매개변수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 맥락에서 PM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4) NF는 부부관계 효능감 수준을 낮추어 부부관계 적응 수준을 저하시켰다. (5) PM, PF, NM, NF는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 부부관계 적응, 사회적지지 제공, 부부관계 효능감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장수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14-79

Tel : 051-663-4549, E-mail : sjchang@ks.ac.kr

성역할정체감의 개념 및 측정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수준,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기능, 의사소통이나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행동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가령 정신건강 영역에서 나타난 성차를 보면, 여성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을 남성보다 더 많이 보고하며, 우울증, 공포장애, 불안장애, 식이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진단받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남성은 여성보다 알코올중독과 같은 물질남용, 자기도취, 반사회적 및 강박적 성격장애로 진단받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Lips, 2008). 건강영역에서의 남녀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원인일 수 있으나, 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주로 이를 성 유형화된 사회화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 주목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하면, 남성성(masculinity) 고정관념은 독립적, 과업 지향적, 경쟁적, 이성적, 감정을 억제하는 측면, 여성성(femininity) 고정관념은 관계지향적, 양육적, 감성적 측면과 관련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각 성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고정적인 성역할을 내면화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나 사회적 원조 요청 빈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결과적으로 건강수준, 질병형태 및 심리적 적응에서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보다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처럼(Williams & Spitzer, 1983), 남성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 고정적 남성역할의 영향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원조요청 행동이 남성성 규범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더 허용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타인의존성은 여성의 무력감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Lips, 2008: 정혜정, 공미혜, 전영주, 정현숙, 200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허용되는 남성성 및 여성성의 기대치가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 내면화된 것이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이다.

성역할정체감 측정에 대한 학문적 시도를 살펴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반되는 속성을 지닌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Terman & Miles, 1986). 즉 남성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성성이 낮고, 여성성이 높은 사람은 남성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간주하는 측정방법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며 이 두 속성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Constantinople, 1973)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이후에 Bem(1974)은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BSRI(Bem Sex Role Inventory)개발을 통해 확고히 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하여, 여성성은 낮고 남성성만이 높은 남성성 정체감, 그 반대의 경우인 여성성 정체감,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높은 양성성(androgyny) 정체감, 모두 낮은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Spence와 Helmreich(1978)에 의해 개발된 PAQ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에서 역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BSRI나 PAQ는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성 및 여성성 측면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판은 Bakan(1966)이 인간 발달의 두 중심축으로서 남성성-여성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창한 주도성(agency)-공유성(communion)¹⁾의 극단적 형태인 과도한 주도성(unmitigated agency)과 과도한 공유성(unmitigated communion)에 관해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Bakan(1966)은 공유성이 결여된 주도성과 주도성이 결여된 공유성은 개인의 적응과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동시에 가지며, 연구자들은 이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이론적, 실제적 필요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Spence, Helmreich와 Holahan(1979)은 Bakan(1966)의 이론에서 지적된 과도한 주도성과 공유성, 즉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을 도입한 확장된 형태의 PAQ(EPAQ;

Extended Personal Attribut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EPAQ의 4가지 하위 구성요소이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긍정적 남성성은 독립성, 합리성과 같은 도구적 속성으로 대표되고, 긍정적 여성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계지향성과 같은 표현적 속성으로 대표되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 남성성은 긍정적 여성성이 결여된 남성성으로 자기 중심성, 배타성과 같은 속성을 갖고, 마찬가지로 부정적 여성성은 긍정적 남성성이 결여된 여성성으로 타인의존성, 자신감 부족과 같은 속성을 지니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다.

대부분의 심리학,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만을 측정하는 BSRI 내지는 PAQ로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한계를 갖는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오류를 높임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 간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남성성 및 여성성과 관계있는 다른 개념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mrind, 1982; Kelly, Caudill, Hthorn, & O'Brien, 1977). 예를 들어, 성역할정체감에서 부정적 측면을 분리하여 논의하지 않을 경우,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개인 및 대인관계 적응에 대해 갖는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 할 수 있다. 부정적 남성성-긍정적 남성성, 부정적 여성성-긍정적 여성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제시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Fritz & Helgeson, 1998; Rosen & Martin, 1998)을 볼 때, 남성성-여성성의 단일 축으로만 논의를 단순화시킬 경우, 남성성 내지는 여성성이 높은 개인들 안에 부정적 남성성과

1) 주도성(agency)과 공유성(communion)은 인간존재의 기본 양상으로서, 주도성은 한 개인이라는 유기체의 존재양상이며, 자기주장, 자기확대, 달성에의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유성은 더욱 큰 유기체에 속하는 개인으로서의 존재양상이며 타인과 함께 존재한다는 감각, 타인에 대한 애착, 친밀한 대인관계, 접촉, 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개념적 구분은 성별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도성은 남성성, 공유성은 여성성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Bakan, 1966: 장수지, 2008에서 재인용).

여성성이 높은 개인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성역할정체감과 관련 개념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그들 각각이 도출하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 효과가 기능적인 경우와 역기능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대처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개념을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분리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성역할정체감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행동양식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도구적 특성이 강한 남성성과 표현적 특성이 강한 여성성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행동에 대해 각기 다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남성성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낮았고(Holahan & Spence, 1980; Nezu & Nezu, 1987; Roos & Cohen, 1987),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Carlson & Baxter, 1984), 건강에 관한 불평이 더 적었다(Robbins, Spence, & Clark, 1991). 이에 비해, 여성성과 정신건강은 관련이 없거나(Bassoff & Glass, 1982), 긍정적 관련이 있더라도 남성성보다는 미약한 효과를 지니는 등(Whitley, 1984), 여성성은 남성성에 비해 긍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여성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높고(Watson, Sherbak, & Morris, 1998), 친밀한 대인관계 구축에 용이하다(Mansfield & McAdams, 1996). 즉 여성성은 대인관계 적응에 유용한

속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과 관계를 살펴볼 변수로서, 특히 부부관계 맥락에서의 적응에 주목하였다.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를 검토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을 BSRI로 측정된 경우 공통적으로 양성성을 지닌 부부의 관계적응이 가장 좋으며, 부부가 둘 다 미분화유형인 경우 관계가 악화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Baucom, Notarius, Burnett, & Haefner, 1990). 이는 결혼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과제에 얼마나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성역할에 유형화된 남편과 아내는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제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좁은 범위 내에서 대처 가능할 때는 결혼생활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지만(Baucom et al., 1990), 자신이 고착되어 있는 성역할을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의사소통에서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경우는 남성적인 능력이 필요한 상황 혹은 여성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Taylor & Hall, 1982), 훨씬 넓은 범위의 과제나 상황에 대해 적응적으로 임할 수 있다(Bem & Lenny, 1976).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 부정적 측면의 성역할정체감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부부치료를 받기 위해 내담한 역기능적 부부를 대상으로 한 Sayers와 Baucom(1991)의 연구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의사소통방식을 살펴본 결과, 여성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 시 이성적인 대처보다는 감정적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성이 내포하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여성성은 부부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부정적 여성성은 부부관계에 역기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부정적 남성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낮았는데 (Bradbury, Campbell, & Fincham, 1995), 부부관계는 어떠한 대인관계보다도 친밀성이 높은 관계이므로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지니는 부정적 남성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혼남녀의 긍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부부관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매개요인: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매개요인으로 부부관계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 (marital efficacy)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성역할정체감이 부부관계 적응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집중되고 있으나, 이는 자칫 단순한 논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즉 성역할정체감이란 개인의 성격적 속성이 부부관계에서의 태도나 상호행동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태도 및 행동이 부부관계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를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의 상호작용행동의 측면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태도의 측면으로는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타인을 원조하고 지지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House(1981)은 사회적지지의 기능을 ① 정서적지지(동감이나 공감, 배려, 신뢰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지지), ② 도구적지지(타인을 위해 일을 해 주거나 간병,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등의 직접적인 원조), ③ 정보적지지(전문적인 지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는 지지), ④ 평가적지지(상대방의 일이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의견에 찬성하는 등의 지지)의 4종류로 분류하고 이 요소들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수용 인지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hen & Wills, 1985). 동시에 타인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제공은 제공자 본인에게도 긍정적 감정을 유발한다(Cialdini & Kenrick, 1976). 부부관계 맥락에서 보면, 배우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도구적,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회적지지의 원천이며(Argyle, 1992), 배우자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많이 제공받는다고 인지할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Fincham & Bradbury, 1990).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친밀하고 결속력 높은 부부관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성역할정체감의 어떠한 속성이 사회적지

지 제공에 유의미하게 관계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건전한 부부관계를 위한 성역할정체감 정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정체감과 사회적지지 제공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매개효과 검토를 위한 명료한 논리적 근거 제시는 어렵지만, 근접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Abele(2003)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여성성은 다른 가족성원을 돌보고 가사일에 개입하는 가족역할 개입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가족역할에 대한 개입을 통해 여성성이 높아지는 역인과 관계는 지지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감성적인 성격특성과 부합되는 긍정적 여성성이 높은 개인은 배우자에 대한 지지적인 행동을 더욱 많이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의 결과는 성역할정체감이라는 개인의 내적 속성이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행동에 선행함을 보여주며, 이로써 긍정적 여성성→사회적지지 제공→부부관계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인과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지향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성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여성성은 타인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을 높이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 여성성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타인의존적인 속성을 지니는데, 타인의존성과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검토한 한 연구에 의하면, 그 두 요인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았다(福岡欣治, 1998). 또한 타인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지지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만성적인 욕구를 지니지만(Bornstein, 1992), 동시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역기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Bornstein & Johnson, 1990). 이로써 타인의존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여성성의 사회적지지 제공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여성성이 대인관계나 집단 내 조화 등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해 더 주목하는 속성이 라면, 남성성은 자기(self)에 더욱 주목하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Abele & Wojciszke, 2007).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행동은 남녀 모두에게 남성성보다는 여성성과 더욱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이 사회적지지 제공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인지, 긍정적 측면 혹은 부정적 측면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 긍정적 여성성만이 사회적지지 제공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매개요인은 부부관계 효능감이다. 그 개념적 토대가 된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 인지 혹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 및 생각에 대한 통제감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스트레스 대처, 건전한 인간관계,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개인의 적응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basa, 1979; Thompson & Spacapan, 1991).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개념화된 부부관계 효능감은 관계특정적(relation-specific) 효능감으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혹은 관계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정의된다(張秀智, 2007).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아닌 부부관계 효능감을 매개요인으로 도입하였

다. 이는 부부관계는 배우자와의 상호관계성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크므로 개인이 갖는 통제감과 효능감이 모두 반영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부부관계 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은 있었지만 개념적 변별성이 확인되었으며, 부부관계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부관계 만족도도 더욱 높게 나타났다(張秀智, 2007).

이렇듯 부부관계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부부관계 효능감 역시 성역할정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부관계 효능감의 개념적 기초인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성성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Antill과 Cunningham(1979)은 남성성이 남녀 모두에게 자아존중감과 자기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여성성은 이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 관계에 있음을 밝혔으며, Long(1989)도 남성성이 자아존중감 및 내적통제성과 정적으로 관련됨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으로 개념화되는 자기효능감 역시 긍정적 자기개념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남성성이 갖는 합리적, 성취지향적 성향과 부합되는 속성을 지닌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부관계 효능감과 남성성 간의 정적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부관계 효능감은 부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물리적, 감정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자기 확신이므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배우자와의 상호

의존성이 전제된다. 따라서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된 남성성, 즉 부정적인 남성성은 부부관계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관계지향성이 강한 여성성은 부부관계 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부정적 여성성은 의존적인 성향과 주체성 결여로 인해 부부관계 효능감과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해, 긍정적 남성성 및 긍정적 여성성은 부부관계 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 부정적 남성성 및 부정적 여성성은 부부관계 효능감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이며, 부부관계 효능감은 부부관계 적응을 높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정체감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부부관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긍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부부관계 적응과 정적인 관계,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부부관계 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은 부부관계 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H3-1. 성역할정체감 가운데 긍정적 여성성만이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H3-2. 성역할정체감 가운데 긍정적 남성성

과 여성성은 부부관계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부부관계 효능감과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일본의 수도권 I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65세의 일본인 남녀를 대상으로 I시 선거 인명부로부터 2단계 확률비례추출법을 이용하여 1500명을 추출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89부로 회수율은 32.9%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많은 7명을 제외한 기혼남녀 37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

긍정적-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EPAQ(Extended Personality Attribution Questionnaire; 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를 사용하였다. 성역할정체감 측정을 위한 도구로 BSRI(Bem, 1974)와 PAQ(Spence & Helmreich, 1978)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EPAQ는 PAQ를 확대, 발전시킨 척도이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표현이 어색한 문항 및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총 18개의 문항으로 긍정적-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4점)’까지 4점으로 평정되었다. EPAQ에서는 부정적 여성성이 다시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ve)와 여성적 공유성(Feminine Communion)의 하위개념으로 구분되었고, BSRI

에서의 양성성 개념과 같은 남성성-여성성(M-F)을 하위 개념으로 두어 긍정적 남성성 및 긍정적 여성성, 부정적 남성성, 여성성a(언어적 공격성)과 여성성b(여성적 공유성), 양성성의 총 6개의 하위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간명성을 위해 부정적 여성성을 두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자료에 따라서는 이 두 하위개념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EPAQ를 이용한 Rosen 외(1998)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여성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남성성(Positive Masculinity, 이하 PM으로 표기), 긍정적 여성성(Positive Femininity, PF), 부정적 남성성(Negative Masculinity, NM), 부정적 여성성(Negative Femininity, NF)의 4요인 모델이 일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내적일관성 계수 α 는 각각 .82, .82, .81, .66으로 높게 나타났다. Rosen 외(1998)의 연구에서의 α 계수는 각각 .63, .72, .79, .80로 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이외의 통계적 분석에서는 각 측정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값을 각각 PM, PF, NM, NF값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제공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은 House(1981)의 정의에 기초하여,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를 각각 측정하는 4개 문항(‘남편(아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격려해 준다’, ‘남편(아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남편(아내)에게 인간관계나 일에 관한 여러 가지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남편(아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심리학과 교수 1명, 사회심리학 박사 1명, 사회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명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이는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계수 α 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 검증을 위한 t검정 시에는 각 측정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효능감

부부관계 효능감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혹은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정의되며(張秀智, 2007),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장수지(張秀智, 2007)가 구성한 6문항 중 3문항(‘ 남편(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 버린다(역)’, ‘부부관계에서 서로 간의 엇갈림을 노력을 통해 극복할 자신이 있다’, ‘향후 결혼생활에서 큰 장애가 있을 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자신이 있다’)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4점)’까지 4점으로 평정되어, 총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혹은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수지(張秀智, 2007)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로 측정된 부부관계 효능감과 자기효능감(Bandura, 1977)과의 상관관계는 $r=.20\sim.30$ 사이로 두 변수 사이의 개념적 변별성을 확인하였으며, 부부관계 효능감의 개념이 단일 요인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 α 는 .73이었다. 기술통계 및 t검

정 시에는 각 측정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적응

부부관계 적응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정의된다. 5개 문항(‘상대방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이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이다’, ‘서로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관계이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설문들 역시 사회심리학 전공자 3명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계수 α 는 .89이었다. 기술통계 및 t검정 시에는 각 측정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우선 긍정적 및 부정적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AMOS 4.0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이어 4개 성역할정체감의 성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사회적지지 제공, 부부관계 효능감, 부부관계 적응 정도에서의 성별 차이 검토를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으로, 전체 대상자 및 남녀별로

부부관계 효능감 및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제공의 매개효과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치 추정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검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많이 쓰이는 CFI(Comparative Fit Index),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cker-Lewis Index)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이어 18개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인 긍정적 및 부정적 남성성, 여성성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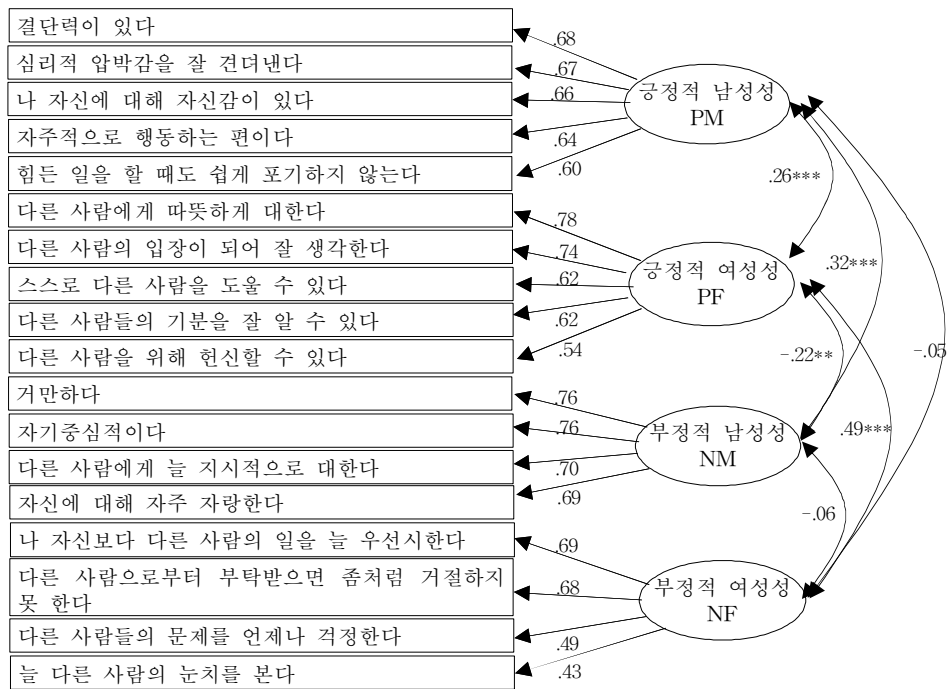
측정모형의 본 자료에 대한 적합도는 χ^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평균	빈도(%)
성별	남성	190(50.5%)
	여성	186(49.5%)
	합계	376(100.0%)
		$M=53.09(SD=8.69)$
연령	30대	32(8.5%)
	40대	103(27.4%)
	50대	128(34.0%)
	60대	113(30.1%)
	합계	376(100.0%)
혼인기간	$M=25.38년(SD=10.60)$	
수학기간	$M=13.83년(SD=2.48)$	
취업형태	종일종사자	192(52.5%)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68(18.6%)
	정년퇴직/은퇴	41(11.2%)
	결혼/출산에 의한 퇴직	48(13.1%)
	일시적 무직상태	12(3.3%)
	취업무경험자	5(1.4%)
	합계	366(100.0%)
경제적 여유	여유 없음	50(13.4%)
	그다지 여유 없음	58(15.5%)
	보통	180(48.1%)
여유	약간 여유 있음	63(16.8%)
	여유 있음	23(6.1%)
	합계	374(100.0%)

주. 무응답에 따라 문항마다 사례수의 차이가 있음.

$=210.8, df=110; CFI=.958; TLI=.951; RMSEA=.039$ 로 나타났다. 적합도 해석기준은 TLI와 CFI은 그 값이 .90 이상인 경우, RMSEA는 .06 이하의 값이면 측정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



주: *** $p < .001$, ** $p < .01$

그림 1.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376)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또한 잠재변수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43~.78로 .5 이하는 2개의 측정변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로써 본 척도의 높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4개의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PM-PF 간 상관계수 $r = .26(p < .001)$, PM-NM $r = .32(p < .001)$, PM-NF $r = -.05(ns)$, PF-NF $r = .49(p < .001)$, PM-NM $r = .32(p < .001)$, NM-NF $r = -.06(ns)$.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남성성과 긍정적 여성성 사이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성역할정체감의 4개 하위개념,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부부관계 효능감, 부부관계 적응의 평균(표준편차)을 각각 구하고, 성별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성역할정체감의 경우, 4개 하위개념들의 평균은 PF, PM, NF, NM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독립변수, 4종류의 성역할정체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성별에 따라 4개의 성역할정체감 평균치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M, NM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고, PF은 여성이 남성보다

표 2. 주요 변수의 성별 차이(MANOVA 및 t-test의 결과)

변수	전체(N=374)		남성(N=190)		여성(N=184)		F, t
	M	SD	M	SD	M	SD	
성역할							
긍정적 남성성(PM)	2.83	.58	2.93	.56	2.74	.59	8.63**
긍정적 여성성(PF)	3.13	.50	3.07	.53	3.19	.47	7.19**
정체감							
부정적 남성성(NM)	1.97	.66	2.08	.69	1.87	.61	7.42**
부정적 여성성(NF)	2.62	.54	2.59	.52	2.65	.55	2.11
사회적 지지	3.33	.57	3.36	.50	3.30	.64	.88
부부관계 효능감	2.95	.69	3.02	.65	2.88	.72	1.97*
부부관계 적응	3.85	.87	4.01	.80	3.69	.72	3.46**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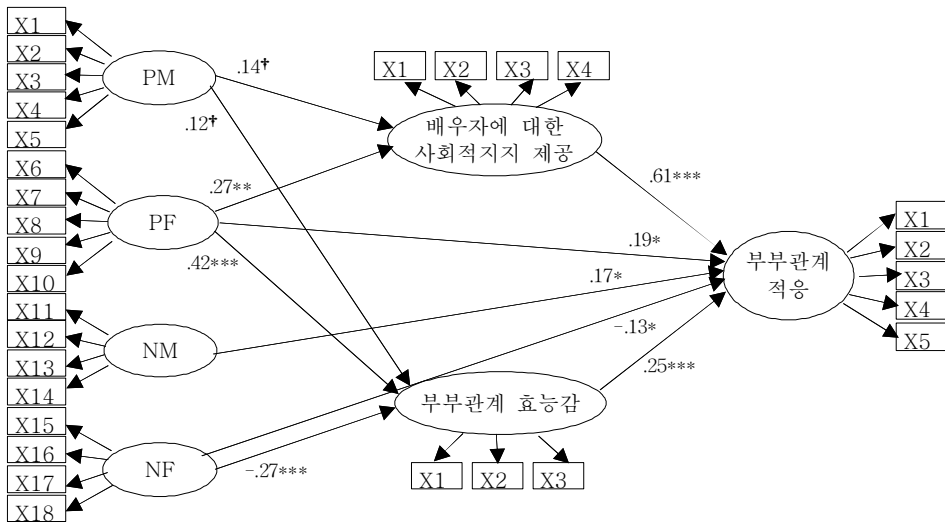
다 더 높았으나, NF에서의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 제공, 부부관계 효능감, 부부관계 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부부관계 효능감 및 부부관계 적응 정도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 부부관계에서의 인지/행동적 측면, 부부관계 적응 간 관계의 매개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이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을 매개하여 부부관계 적응과 유의미한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2).

이 인과적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긍정적 및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 종속변수는 부부관계 적응으로, 매개변수는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해 학력수준과 직업유무를 통제하였

으나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모형은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적절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chi^2 = 789.1$, $df = 425$, $TLI = .92$, $CFI = .93$, $RMSEA = .04$). 그림 2에 제시된 표준화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난 값이다. 우선 매개변수인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 모두 부부관계 적응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지만, 특히 사회적지지 제공의 효과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4개의 성역할정체감 변수 중, PM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에 의해 매개되어 부부관계 적응 수준을 높이는 간접효과는 각각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향성이 제시되었다. PF는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직접효과도 유효했지만 이보다도 두 매개변수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에서의 긍정적 여성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됨과 동시에 매개효과 검토의 효용성이 확



주: 학력수준과 직업유무를 통제함. 수치는 표준화된 모수추정치임.

*** $p < .001$, ** $p < .01$, * $p < .05$, † $p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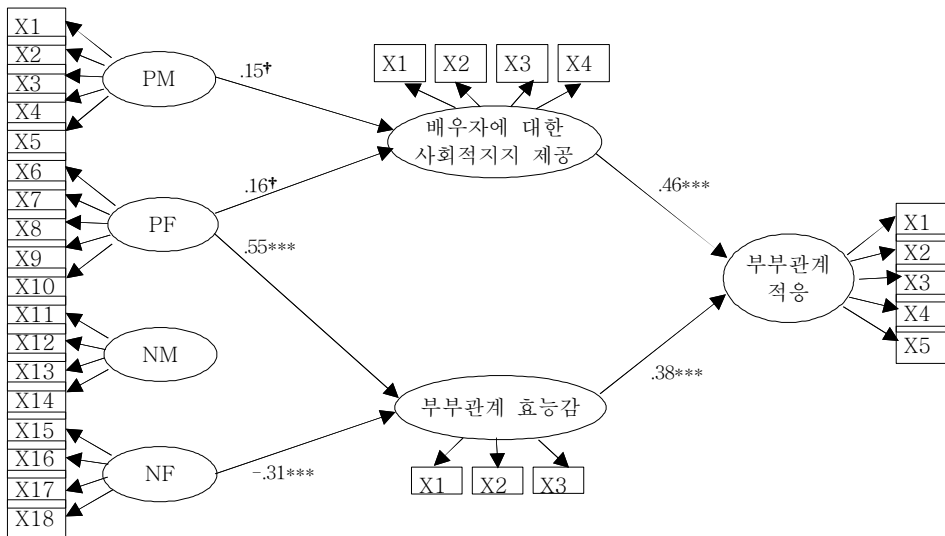
그림 2.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N=374)

인되었다. 또한 NM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 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약하지만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NF는 부부관계 적응에 대해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부부관계 효능감에 대해서도 역시 부적관계를 보여 매개효과가 제시되었다.

이로써 첫 번째 연구가설(H1) 검증에서 NM을 제외한 PM, PF, NF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가설(H2) 검증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은 부부관계 적응에 대해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써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가설 3-1의 검증에서는 PF뿐만 아니라, PM 역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가설 3-2의 검증에서는 NM

이외의 3개 성역할정체감의 경우 유의미성이 제시되어, PM과 PF의 경우 부부관계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NF의 경우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가설을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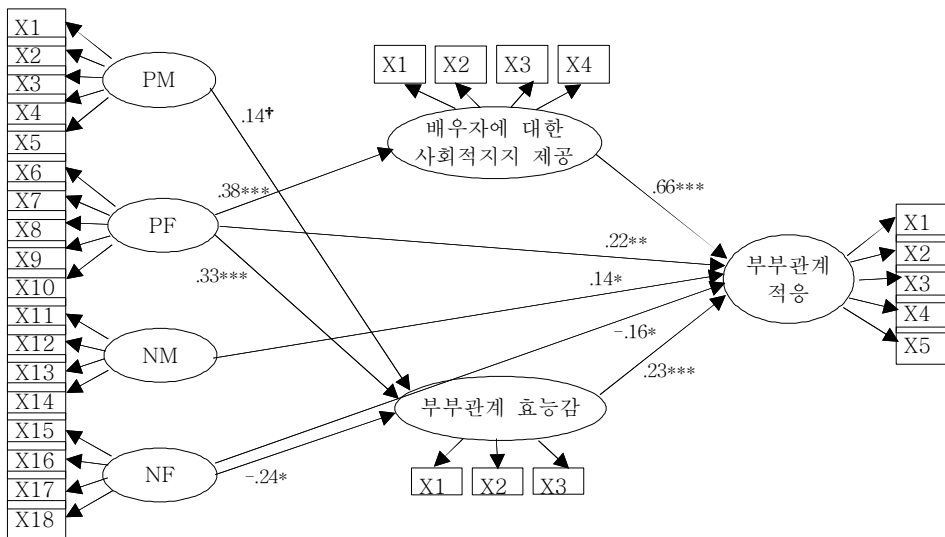
앞서 제시한 표 2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남성성과 여성성 평균값의 남녀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그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 남녀별로 경로계수 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3, 그림 4). 남녀 집단 별로 나타난 특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록 10% 유의수준에서의 결과이기는 하나, PM이 사회적지지 제공에 이르는 경로는 남성에게서만 의미가 있었고, 부부관계 효능감에 대한 경로는 여성에게서만 의미가 있었다. PF에서 사회적지지 제공에 대한 효과는 여성의 경우 매우 높았으며, PF의 부부관계 효능감에 대한 효과는 남녀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남성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NF는 부부관계 효능감에 대해



주: 학력수준과 직업유무를 통제함. 수치는 표준화된 모수추정치임.

*** $p < .001$, † $p < .1$

그림 3. 남성의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N=190$)



주: 학력수준과 직업유무를 통제함. 수치는 표준화된 모수추정치임.

*** $p < .001$, ** $p < .01$, * $p < .05$, † $p < .1$

그림 4.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N=186$)

남녀 모두 부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F, NM, NF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역할정체감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향으로서의 남성성, 여성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관계적응에서 역기능적일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도 주목하여, 이들이 부부관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영향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성역할정체감의 PM, PF, NM, NF의 4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입한 4요인 성역할정체감의 구성타당도가 만족할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PF-NM 간의 부적 상관관계, PM-PF, PM-NM, PF-NF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다. 이 중 PF-NF 간 상관계수는 .49($p < .0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Fritz 외(1998)의 연구에서도 .51($p < .001$)로 유사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이 질적인 특성을 지닌 PM과 PF가 서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이 두 개념이 일차원상의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공존 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요소가 공존하는 개인은 양성성(Bem, 1974) 정도가 높은 개인이며, 인간 발달의 최적의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적응적인 인간유형(Bakan, 1966)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역할정체감 4요소 중 PF의 평균치가 가장 높게, NM의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산분석을 통해 이들 평균치에서의 성별차이를 검토한 결과, PM, NM의 정도는 남성이 더 높게, PF의 정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NF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남성성은 남성이, 여성성은 여성이 확연히 높고 부정적 측면 역시 각 요소의 전형적 성별에서 그 속성이 더욱 우세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일본인의 비교문화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즉, 상호독립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이 규범화된 서구사회에 비해 일본은 대표적인 집단주의 사회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조화 등은 일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시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이 타인에 주목하고 타인에 비추어 자신을 정의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은 성역할정체감 중 여성성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사회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는 반대로 NM은 반사회규범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남성의 NF가 NM보다 더 높은 값이며 여성과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 매개효과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인과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PM은 남성의 경우 예측과는 달리, 미약

하게나마 사회적지지 제공과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제공이 관계지향성이 강한 행동이므로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의 정적 효과에만 주목하였으나, 긍정적 남성성이 높은 개인은 주체성이 높고 자신이 가진 자원과 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므로 타인에게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PM은 예상대로 부부관계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부부관계 적응에 대해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PF는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을 거쳐 부부관계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직접효과도 제시되어, 여성성이야말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Antill(198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적 성역할정체감을 갖지 않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 김명순(1988)의 연구결과 및 여성적 및 미분화적 성역할정체감을 가지는 경우 이성과의 의사소통 지각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는 최영임과 장휘숙(2006)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는 PF와 NF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NF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여성성에 대한 규범적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집단에서의 조화,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주장의 억제와 같은 여성적 특성을 남녀 모두에게 강하게 기대하며, 동시에 성역할태도 면에서

도 남성에게는 전통적인 남성적 태도를,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여성적 태도를 요구하므로,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성 규범이 이중으로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秋山弘子, 1997). 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여성성은 매우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부관계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NM은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인데, NM은 그 속성상 나르시시즘,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등의 성격을 띠는 바 그것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본인의 성역할정체감과 본인의 부부관계 적응 평가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 배우자가 평가한 부부관계 적응 정도도 고려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NF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부부관계 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부부관계 적응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 관계가 제시되었다. 이는 NF가 대인관계에서의 낮은 자기노출, 자기주장에 대한 어려움,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 NF 성향이 강한 경우 건강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Fritz 외(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긍정적 여성성은 부부관계에서의 사회적지지 제공행동을 촉진시키고 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등, 부부관계 적응에 매우 유용한 속성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부정적 여성성은 부부관계에서의 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관계에서의 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었

다. 이는 여성성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은 모두 부부관계에서의 적응 정도를 높이는 유효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거나 일을 도와주는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배우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교환이 이루어져 부부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부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관계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은 다시 본인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하기 쉽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수용(인지)이 개인 혹은 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수용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속성인 성역할정체감이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이라는 긍정적 상호작용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독립변수 중심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사회적지지 '제공'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부관계 적응 정도를 더 많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 중심의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적지지 제공보다는 수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과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수용과의 관련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 효능감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었는데, 결혼생활에서 문제적 상황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에 직면하였

을 때,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는 것이 부부관계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지지 제공에 비해서는 부부관계 효능감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호의존성이 중시되는 부부관계에서는 개인의 신념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신념이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나아가서는 부부관계의 향상도 도출되지 않는다.

넷째, PM, PF, NM, NF는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 각각에 대해 다르게 작용하여 부부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의 부부관계 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제공행동에 주목하였으나, 성역할정체감은 이들 외에도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등해결 상황에서 자신의 논리와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의사소통전략에는 PM이 효과적일 것이며, 상대방의 의견과 기분에 주목하고 배려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의사소통전략에는 PF가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지배적으로 행동하는 의사소통전략은 NM과 관련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기분을 접어두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전략은 NF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 및 부정적 성역할정체감은 부부관계 적응에 다각도로 관련됨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단순한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격이 다른 두 변수를 매개변수로 설정함으

로써 그 점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다섯째, PM, PF, NM, NF는 사회적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였다. 남성의 경우 PF가 부부관계 효능감을 강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PF의 효과도 강하였으나, 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미약하게나마 PM의 효과도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 성의 성역할 특성을 가지는 것이 부부관계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곧 긍정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성역할정체감과 개인의 적응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틀은 크게 성역할일치 모델(the sex-typed model), 양성성(androgyne model) 모델, 남성성 모델(masculinity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성역할일치 모델에서는, 남성은 남성적 성역할, 여성은 여성적 성역할에 일치하는 성역할정체감을 갖는 것이 긍정적 자기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성 모델에서는, 남녀 모두 양성적인 개인의 적응 정도가 높다고 강조되며, 남성성 모델에서는, 여성적 특징보다는 남성적 특징이 개인의 자아존중감, 효능감, 통제감과 같은 긍정적 자기개념과 관련이 높다고 한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양성성 모델과 남성성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더 유효한지에 대해 논쟁되고 있으나, 연구에 따라 개념, 측정도구, 표본수가 다르므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Unger & Crawford,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PM과 PF 둘 다 부부관계에서의 태도 및 상호작용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부부관계 적응을 높인다는 경로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양성성 모델의

주장에 더욱 합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PF의 효과는 매우 크게 드러났는데, 이는 여성성이 높은 사람이 부부관계에서 부정적 의사소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Sayers 외(199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배경에는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NF는 오히려 부부관계에서의 효능감을 떨어뜨려 관계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NF는 부부관계에 유해할 수 있으나, PF는 유용한 속성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PM과 NM 간에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PM에서만 매개변수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성의 경우도 PF와 NF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제시되었으나, 매개변수에 대한 효과는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정체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속성이 부부관계에서의 사회적지지 제공행동과 효능감에 대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 개념의 다원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도출하는 인간 적응에 관한 논의의 구체화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존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은 임상적 현장에서도 유용하다. NM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욕구와 입장, 감정에 더욱 주목하도록 훈련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NF 성향이 높은 사람에

게는 본인의 욕구와 감정에 더욱 주목하도록 훈련하여 부부관계 맥락에서의 통제감과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킴으로써 주체적이고 대등한 부부관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모형의 검토를 통해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역할정체감의 요소들이 부부관계에서의 인지적, 행동적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관계적응으로 이어지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행동적, 인지적 전략으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제공과 부부관계 효능감의 두 요인의 효과만을 검토하였으나,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수용, 갈등해결전략, 부부간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녀와의 관계 등과 같이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행동 및 인지의 매개효과 검토를 거쳐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간의 이론적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에서의 인지와 행동, 그 개인이 평가한 부부관계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부부관계는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대인관계이므로 상대방의 성역할특질 및 행동, 인지를 배제해서는 부부관계에서의 적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쌍자료를 의한 모형검증을 통해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이론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이 한국 기혼 남녀의 부부관계 적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한국의 성역할규범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

집을 위해 확률표집에 의한 우편조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수율이 다소 저조하다. 표본의 성비, 연령대 분포 및 취업형태 비율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일본인의 평균적 분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나, 낮은 회수율로 인해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장수지 (2008).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의 개념화 및 척도의 타당도 검토: 일본 중·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양적 통합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75-103.

정혜정, 공미혜, 전영주, 정현숙 (2009). 가족과 젠더. *신경*.

최영임, 장휘숙 (2006). 성과 성역할정체감 및 성격특성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77-91.

秋山弘子 (1997). *ジェンダーと文化-男性と女性の社會的ネットワーク-*, 柏木恵子, 北村忍, 東洋(編). *文化心理學:理論と實証*. 東京大學出版會.

張秀智 (2007). *夫婦關係における心理的自立: 女性における「個」と「關係性」の兩立*. 東京大學博士論文.

福岡欣治 (1998). *依存的な人にとってのソーシャルサポート源の限界-他社依存性と知覺されたサポートの 効果に關する基礎的研究-*, *静岡縣立大學短期大學部研究紀要*, 12(3), 4-1-4-11.

Abele, A. E. (2003). *The dynamics of*

- masculine-agentic and feminine-communal traits: Findings from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768-776.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 Antill, J. K. (1983). Sex role complementarity versus similarity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45-155.
- Antill, J. K., & Cunningham, J. D. (1979). Self-esteem as a function of masculinity in both sex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4), 783-785.
- Argyle, M. (1992). Benefits produced by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In H. O. F. Veiel & U. Baumann(Eds.),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Chicago: Rand McNally.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ssoff, E., & Glass, G.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s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26 stud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4), 105-112.
- Baucom, D. H., Notarius, C. I., Burnett, C. K., & Haefner, P. (1990). Gender differences and sex-role identity. In F. D. Fincham & T. N. Bradbury(Eds.), *The psychology of marriage*. Guilford, 150-171.
- Baumrind, D. (1982). Are androgynous individuals more effective persons and parents. *Child Development*, 53, 44-75.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 Lenny, E. (1976). Sex 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ornstein, R. F., & Johnson, J. G. (1990). Dependency and psychopathology in a nonclinical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417-422.
- Bornstein, R. F. (1992). The dependent personality: Development, soci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12, 3-23.
- Carlson, H. M., & Baxter, L. A. (1984). Androgyny,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Irish homosexual males and females. *Sex Roles*, 10, 457-467.
- Cialdini, R. B., & Kenrick, D. T. (1976). Altruism as hedonism: A social development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mood stat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07-914.
- Cohen, S., & Wills, T. A. (1985).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nstantinople, A. (1973). Masculinity-femininity: An exception to a famous dictum? *Psychological Bulletin*, 30(3), 389-407.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0). Social support in marriage: The role of social

- cogni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31-42.
- Fritz, H. L., & Helgeson, V. S. (1998). Distinctions of unmitigated communion from communion: self-neglect and overinvolvement with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121-140.
- Holahan, C. K., & Spence, J. T. (1980). Desirable and undesirable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in counseling clients and unselected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300-302.
- House, H.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Addison Wesley.
- Kelly, J., Caudill, S., Hathorn, S., & O'Brien, C. (1977). Socially undesirable sex-correlated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for androgyny and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86-1187.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Lips, H. (2008). *Sex and gender: An introduction*(6th ed.). New York: McGraw Hill.
- Long, V. O. (1989). Relation of masculinity to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in male professionals, college students, and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1), 84-87.
- Mansfield, E. D., & McAdams, D. P. (1996). Generativity and them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adult autobiograp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721-731.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s,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Nezu, A. M., & Nezu, C. M. (1987). Psychological distress, problem solving, and coping reactions: Sex role differences. *Sex Roles*, 16, 205-214.
- Robbins, A. S., Spence, J. T., & Clark, H. (1991).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performance: The tangled web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755-765.
- Roos, P. E., & Cohen, L. H. (1987). Sex role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life stress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76-585.
- Rosen, L. N., & Martin, L. (1998). Long-term effects of childhood maltreatment history on gender-rela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hild Abuse & Neglect*, 22(3), 197-211.
- Sayers, S. L., & Baucom, D. H. (1991). Role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in distressed couples'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641-647.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pence, J. T., Helmreich, R. L., & Holahan, C. K. (1979).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reports of neurotic and acting ou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673-1682.
- Taylor, M. C., & Hall, J. A.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347-366.

- Terman, L. M., & Miles, C. C. (1986). *Sex and personality: Studies in masculinity and femininity*. NY: McGraw-Hill.
- Thompson, S. C., & Spacapan, S. (1991). Perceptions of control in vulnerable popu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7, 1-21.
- Unger, R., & Crawford, M. (1996). *Women and gender: A feminist psychology*. McGraw-Hill Companies.
- Watson, P. J., Sherbak, J., & Morris, R. J. (1998). Irrational beliefs,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73-179.
- Whitley, B. E. (1984). Sex 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Williams, J. B., & Spitzer, R. L. (1983). The issue of sex bias in DSM-III. *American Psychologist*, 38, 793-798.
- 1 차원고접수 : 2010. 1. 25.
심사통과접수 : 2010. 3. 04.
최종원고접수 : 2010. 3. 24.

Positive-Negative Sex Role Identity and Marital Adjustment: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Provision and Efficacy in Marriage

Sujie Chang

Kyungso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provision for spouse and marital 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negative sex role identity and marital adjustment. Mail survey was conducted on 376 Japanese married men and women sampled by probability sampling method in ages between 35-65. Data were analyzed in four way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ANOVA,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factor sex role identity model-Positive Masculinity(PM), Positive Femininity(PF), Negative Masculinity(NM), Negative Femininity(NF)- was high enough.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1) social support provision and efficacy in marriage were important factors for enhancing marital adjustment, 2) social support provision and marital efficacy were significant positi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PM and marital adjustment, 2) PF had strong positive effects on marital adjustment in direct and indirect ways, 3) NF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efficacy. 4) PM, PF, NM and NF had different impact on social support provision and marital efficacy respective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ositive-negative sex role identity, marital adjustment, social support provision for spouse, marital efficacy